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불만

(마 20:1-16)

God's Goodness and Our Dissatisfaction

(Matt.20:1-16)

본문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대로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값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text refers to the parable of the workers in the vineyard. As we know well, this parable explains that the first ones hired were paid the same wages like the last ones hired.

1. 구원의 법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포도원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일꾼들은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도 정오에도 오후 늦게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1. The rule of salvation

What Jesus said in this parable is about salvation. The vineyard in the text refers to heaven, the owner of the vineyard refers to God, and worker refers to human beings. And the fact that workers were called and sent to the vineyard to work is the action of God's salvation. A landowner went up and down the market, early in the morning, at noon, and even late in the afternoon, and continued to call and send those who were loitering in the market to work in his vineyard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I, too, am, working’ (John 5:17).

It is God who sits on the throne of glory but does not only look on the world.”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포도원과 장터를 왔다갔다 하며 일꾼을 불러 모으는 주인과 같이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God even now works very hard for us to save a spirit, at any rate, like the landowner who goes back and forth to the market all day long, calls, and sends workers to his vineyard to work.

2. 자비의 법

일찍 온 일꾼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벽에 부름 받은 일꾼들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해가 떨어지기 직전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2. The rule of mercy

The fact that workers who came early and late received the same wage of a denarius is God's mercy. Israel was the workers who were called at dawn. On the other hand, our countrymen were sent to the vineyard just before the sun set at dusk. However, we received a denarius, in other words, the grace of complete salvation, just like the Israelites.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구원을 간구하는 한편 강도에게 언제 믿기 시작했는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법입니다.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He only asked for salvation but did not ask the time when a thief began to believe God and how much good work he did. We are allowed to have the same salvation just like Abraham. It is the rule of mercy that God gives us.

3. 인간의 비루한 형평성의 법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온 일꾼들과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과 함께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찍 왔던 사람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집 나갔던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를 보고 탕자의 형은 아버지를 몹시 원망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눅 15:31).

3. The fairness rule of unhandsome human beings

Even though the workers came late, they received the same wage of a denarius, just like those who came earlier than them. They were happy with the owner of the vineyard. However, those who came earlier actually complained too much. This is just like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in Luke 18. The son saw his father greeting his brother, the lost son lovely and he resented his father very much. At that time his father told him, “My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Luke 15:31).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인간의 속좁고 비루한 형평성의 법을 적용하려 한다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16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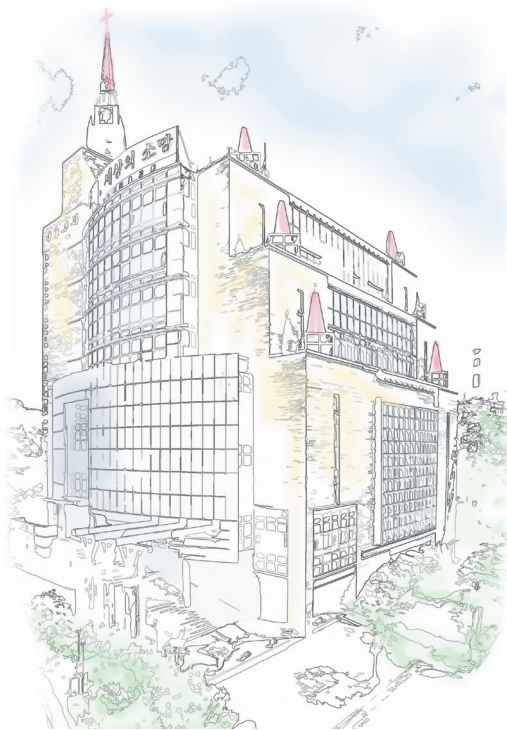
By living our life of faith, we never forget to have a possibility of falling into fallacy. If we apply the work of God's salvation to the fairness rule of narrow-minded and unhandsome human beings, the word of Jesus comes to us as “So the last will be first, the first will be last” (v.1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인간의 형평성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법과 자비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My beloved Christians,
We never live our life according to the fairness rule of human beings; however, we live our life according to the rule of God's salvation and the rule of mercy.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혹은 나중 된 자라 할지라도 먼저 된 자 못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refore, the first must strongly keep his position, even the last gives glory to God as much as the first. By enjoying God's glory given by God as much as you lik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live your liv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5년도 섬김위원 임명

- 오늘, 주일 I · II · III부 예배 시간에 / 3부 예배후, 교구총회 -

오늘 교회는 2015년도 남녀 서리집사 및 협동집사, 협동권사, 은퇴협동집사, 은퇴협동권사, 교구일꾼, 각 위원회, 교사, 찬양대원, 각 부서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오늘 후보와 함께 배부된 2015년도 섬김위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들은 감사함으로 임명 받아 2015년 한 해 교회를 섬기

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모든 2015년도 섬김위원들은 2015년 1월 1일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한다.

2014년도 섬김위원들은 12월말까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12월 한 달 동안 모든 업무를 인계한다.

한편 3부 예배후 본당에서 교구총회로 모인다.

2015년 농어촌100교회 · Vision2020 · 한 가정 한 선 교사 후원

- 사무국에서 접수 -

2015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 접수를 사무국에서 받는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을 섬길 일꾼들

지난 주 우리교회는 2015년을 이끌 일꾼들을 임명하였다. 스테반회 회장으로는 홍일성 집사, 부회장에 차도훈 집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제1권사회 회장으로는 김신영1 권사, 부회장은 정미연 권사, 제2권사회는 회장 이성에 권사, 부회

장 안분선 권사를, 살롬권사회는 회장 이순례 권사, 부회장 이영희7 권사를 임명하였다.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봉사하기 바란다.



홍일성 집사 (스테반회 회장)



이순례 권사 (살롬권사회 회장)



이성에 권사 (제2권사회 회장)



김신영 권사 (제1권사회 회장)

전도사(교육담당) 청빙



고수는 전도사 (1988년 생)

- 유년부 담당 -

- 한양대학교 섬유디자인과 졸업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졸업예정 (목회학)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입학예정 (신학석사)

청년부 총회 결과

2015년도 청년부 다윗공동체 회장에 김예나 자매(92포래), 요한공동체 회장에 오환근 형제(89포래), 청년2부 바나바공동체 회장에 정성우 형제(83포래)가 선출되었다.

2015년도 선교회, 전도회 회장 부회장

- 빌 립(30-39세) : 김영진 집사 소원섭 집사
- 안드레(40-44세) : 송영준 집사 오윤걸 집사
- 베드로(45-49세) : 공민호 집사 김정환 집사
- 바 울(50-54세) : 고윤상 집사 김광태 집사
- 엘리야(55-59세) : 이근홍 집사 김금준 장로
- 모 세(60-64세) : 김종철 집사 이종창 집사
- 이 삭(65-70세) :
- 아브라함(71세 이상) : 이우식 집사 이찬호 집사
- 도르가(30-39세) : 조 희 집사 조성경 집사
- 루디아(40-44세) : 황인주 집사 양종숙 집사
- 보 보(45-49세) : 김경애 집사 김윤희 집사
- 마리아(50-54세) : 윤용미 권사 유안순 권사
- 에스더(55-59세) : 박현영 권사 김경진 권사
- 한 나(60-64세) : 윤 윤 권사 강창숙 권사
- 리브가(65-70세) : 이혜순 권사 전원순 권사
- 사 라(71세 이상) : 손재겸 권사 이재순 권사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55)

(문 155)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알려진 말라기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답) 구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한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라가 예언한지 100년쯤 지난 후에 바사에서 유다로 돌아와(432-424B.C) 과거만 본 것이 아니고 미래(신약)도 기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세례요한의 때까지 400년간은 예언이 그쳤습니다.

그는 새 언약을 옛 언약에 연결시켰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어떻게 (how)라는 말을 7번 반복 사용하면서(1:2, 6, 7, 2:17, 3:7, 3:8, 13)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죄와 사회를 반영하면서 특히 지도자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거뒀던 제물을 바치고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스스로 속고 속이는 제사장을 책망했습니다. (1:6-14)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치 않으면 저주가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2:1-9)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었습니다.(2:5)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2:6)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말라기는 그것을 경외라고 했습니다.(2:5)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에 자신을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6) 하나님의 종은 경건한 성품과 행위 뿐 아니라 지식을 가져 다른 이들에게 교훈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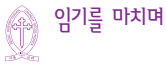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진실하고 결흔 서약을 중요시하고 학대하지 않아야 할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2:10-16) 지도자와 백성의 죄를 지적한 후 심판주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 먼저 그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시는데(3:1) 그가 곧 말라기(내 사자)입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자신을 사자라 생각지 않았습니. 사복음서는 그 사자를 세례요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심판날에 오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3:5, 4:1)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4:4) 하나님의 약속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4:5, 6)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다른 문서들의 순서로 되어 역대하가 제일 끝에 오지만 라틴어 Vulgate성경이나 70인 역 성경은 우리의 것과 같아 말라기서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은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4:6)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말라기서 마지막 절 다음에 저주 대신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저주로 끝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과 시험과 환난을 보내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고 마침내 근대까지 동원하셨으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계속)

12월 행사 안내

- 12월 7일(주) : 1, 2, 3부 예배 시/ 2015년 섬김위원 임명 3부 예배 후/ 교구총회
- 12월 10일(수) : 오후 1시/ 여전도회 총회
- 12월 12일(금) : 정오 12시/ 향존직 은퇴자 위로회
- 12월 14일(주) : 1, 2, 3부 예배 시/ 세례식 3부 예배 후/ 교사 총회 찬양예배 시/ 찬양대 헌신예배/ 성탄축하찬양(임마누엘찬양대)
- 12월 21일(주) : 찬양예배 시/ 성탄축하 특별행사(교육부서 전체)
- 12월 24일(수) : 수요일 1,2부 통합하여 저녁 7시에 성탄전야예배로 드림
- 12월 25일(목) : 오전 5시/ 성탄절 새벽예배 오전 9시, 11시/ 성탄절 축하예배
- 12월 28일(주) : 찬양예배 시/ 향존직 은퇴식, 장로안식년, 장한 어머니상 찬양예배 후/ 특별제직회
- 12월 31일(수) : 수요일 2부예배는 송구영신예배로 대체함 : 오후 11시 20분~2015년 1월 1일(목) 오전 0시 30분 / 송구영신예배



사랑의 빛진 자가 되어



최차순 장로
(전 스테반회 회장)

함박눈이 그렇게 내리던 초겨울 2014년 스테반회장이라는 막중한 소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적인 사명으로 출선수범하여 서울교회와 스테반회를 섬기겠다는 각오로 출발하였지만 섬기기보다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감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집사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사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구제와 봉사의 직무가 성경적인 마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장의 직무를 내려놓으면서 돌아보건대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봉사를 다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아를 앞장 세워 형제를 재단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아픔처럼 묻어옵니다. 2015년 새해는 2014년을 온고지신 삼아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이 기도와 간구로 각자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스테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장으로 부족한 점이 어디 한둘이 아니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던히 참으시고 사랑과 관용으로 품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 큰 사랑의 빛진 한해였습니다. 또한 스테반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근거리에서 맡은 부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신 역원님들, 무엇보다 스테반회 개혁을 위해 총무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고 양인수 집사님의 헌신, 스테반회의 발전을 위해 동고동락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충언과 헌신적 도움으로 앞장 서신 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정숙 권사
(전 제2권사회 회장)

늘 돕는 자로 교회를 섬기다가 2014년 제2권사회장으로 부름을 받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셨고, 아름다운 동역자를 세우시어 한해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몸되신 서울교회를 위해, 회원들과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제2권사회 모든 회원님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환자 심방을 함께 하셨던 임원들, 1년에 네 차례 성찬식을 위해 전날과 주일 새벽부터 수고해 주셨던 성례부 회원님들, 진중세례식을 담당하셨던 권사님들, 특히 나눔의 집을 운영하며 구제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구제부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훌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늘 교회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사랑의 빛진 자가 되어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15년도에도 이성에 권사회장님을 중심으로 제2권사회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 희생과 헌신에 앞장서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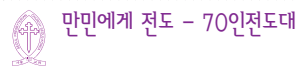
김일순 권사
(전 제1권사회 회장)

지난해 12월, 2014년 제1권사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고 참으로 두려워 떨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며 저의 손을 붙드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시므로 일마다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제1권사회 회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요. 부족한 회장임에도 언제나 “네, 권사님” 하면서 함께 해주신 임원들과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회자세미나와 VIP초대 새생명축제,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하게 섬겨주시고 찬양제와 야외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권사님들 모두에게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 하반기 두 번의 성경필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잊을 수 없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끌어주신 황광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권사님들이 계시므로 서울교회는 더욱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오는 2015년도도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 및 회원 모두가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로 돕겠습니다.



울보 70인 전도대



박인선 권사
(70인전도대)

2014년 12월2일(화요일 10시10분) 이날은 70인전도대 12년 역사에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극동방송 프로그램의 사랑의 뜰안 중 '우리교회 최고'라는 코너에 16명의 팀장들이 방송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각 팀장들이 사역들을 간증 하던중에 어느 팀장님이 간증하며 울먹이자 순식간에 방송국 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배경에 전도사님도 많이 우시고 방송을 진행하던 PD님과 목사님도 눈시울을 적셨고 청취자들의 감동 메시지가 쇄도하였습니다. 참석한 팀장들의 울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 * 전도대상자가 생각이 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었고.....
- * 대상자가 등록할 때 기뻐서 울었고.....
- * 30도 넘는 더위와 영하의 추위에 떨며 전

도하던 생각이 나서 울었고.....

* 가가호호 전도현장에서 수 많은 핍박이 생 각이 나서 울었고.....

* 각자의 간증들이 생각나서 울었고... 등 여러 가지 각자의 간증이 있어서 참석한 팀장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눈물의 생방송을 마치고 2차 점심식사 하러 갔는데 우리 팀장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하신 팀장들을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대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울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 70인 전도대를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울보 70인 전도대 영원히 사랑합니다.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 : 6~7)

의료선교인의 밤 행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지동 집사 (의료선교회)

지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에 제 4회 의료인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여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들이 참석해주셨으며,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이 외 오천 명을 먹이신 말씀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의료에 소외되고, 열악한 의료인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들을 위해, 믿음이 없는 저희에게 믿음으로 말씀과 의료 봉사라는 두 가지 도움을 주라는 말씀으로 한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선교 비전이 불타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있는 단기 의료 선교의 동영상 보면서, 의료인들의 작은 헌신으로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중양아시아 치과 의료 선교사님의 의료 선교의 변화와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선교지의 현 상황과 변화되는 현지인들의 의식 수준과 무관하게 10년 전에 행했던 물량 공세, 행사 위주의 선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선

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의료선교회원들이 바쁜신 가운데 틈틈이 연습하여 준비한 특송도 은혜로왔습니다. 정철웅 집사님의 사회로 단기 의료선교의 방향에 대한 패널토론도 매우 유익하여, 참여한 의료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재능에 감사하고, 준비하여 주님께서 보내시면 언제든 순종하리라는 마음 또한 커지는 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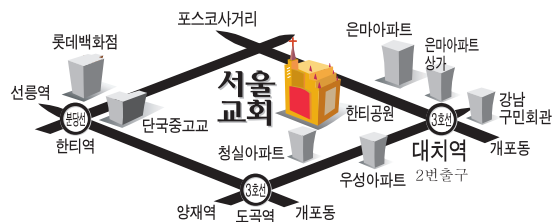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만나홀에서 김동건 집사님의 트럼펫 연주와 식사 교제를 통해 깊어가는 겨울밤이 풍성하고, 감동적인 여운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서울교회의 의료 선교회의 발전과 변화를 소망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의료선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II부 예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I부 예배	오전 11시
	II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층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그레이스핸드벨과 이어(대장:안흥희 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송재월 집사의 지휘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Martha L.Th ompson 편곡)", "항상 진실케 (Patricia S.Cota 편곡)", "만 백성 기뻐하여라 (Dan R.Edwards 편곡)", "성탄 찬양 메들리"등으로 짜여진 흥미롭고 다양한 레파토리로 연주한다. 특별히 초청된 대전핸드벨과이어와 함께 꾸미는 연주에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김양연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 베이스기타 신원열 성도의 협연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2월7일(주) 성김의교회에서 예배설교를 한다. 12일(금)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축도를 한다. 13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21차 월례기도회, 17차신학특강을 갖는다. 사랑의쌀운동과 UBU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주일식당봉사 : 빌립선교회 리브가전도회(12.7) 안드레선교회 하나전도회(12.14)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광민 집사 박민숙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올 한해 동안 수고하시고 또한 새해에 수고하실 각 회의 임원들과 섬김위원들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2. 12월에 있는 대림절과 성탄절의 모든 사역들이 잘 준비되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통로가 되도록
3. 새해에는 놓여준 100교회, 비전2020,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이 더욱 풍성하게 이뤄져 사역의 부흥을 경험하도록